



CIRCUS CARAVAN

9. 18.(금) ~ 10. 4.(일) 매주 금, 토, 일
문화비축기지

주최 · 주관

I·SEOUL·U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협력

문화비축기지

◆ 2020 서커스 카라반 2주차 일정표 ◆

Time	9월 25일 (금)		
	작품명	단체명	러닝타임
13:00	수직	포스	25'
	광대의 꿈	스토리 서커스	40'
16:00	나홀로 서커스	마린보이	30'
	Pulse;맥	프로젝트 루미너리	20'
19:00	조타;Steer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40'
	날갯짓	서커스 디 랩	20'

Time	9월 26일 (토)		
	작품명	단체명	러닝타임
13:00	조타;Steer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40'
	블랙클라운	김찬수마임컴퍼니	30'
16:00	서커스 올림픽	서커스 디 랩	30'
	서커스는 클래식을 타고	피오네로 서커스	45'
19:00	체어, 테이블, 체어.	팀 퍼니스트	35'
	Pulse;맥	프로젝트 루미너리	20'

Time	9월 27일 (일)		
	작품명	단체명	러닝타임
13:00	조타;Steer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40'
	블랙클라운	김찬수마임컴퍼니	30'
16:00	나홀로 서커스	마린보이	30'
	슈뢰딩, 거의 고양이	64J(줄)	25'
19:00	체어, 테이블, 체어.	팀 퍼니스트	35'
	서커스는 클래식을 타고	피오네로 서커스	45'



서커스 올림픽

Circus Olympics

단체명 서커스 디 랩

러닝타임 30분

작품 및 단체소개

서커스와 올림픽 스포츠를 넘나드는 박진감 넘치는 두 남자의 경쟁
오랜 트레이닝 끝에 서커스 올림픽 무대에 선 두 남자. 5대륙의 화합을 상징하는 5개의 각기 다른 색깔의 링, 성화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 컬링부터 테니스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서커스로 재해석하였다. 서커스와 올림픽 스포츠를 넘나드는 박진감 넘치는 두 남자의 경쟁이 시작된다.

‘서커스 디 랩’은 서커스 드라마 연구소의 약자로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연구하는 단체이다. 다양한 오브제에 대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현 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 보여주고자 한다. 단순한 기예를 넘어 재미와 감동이 있는 현대 서커스를 지향한다.

연출 및 출연 이준상, 함서을 스태프 김보미



경상도 비눗방울

Gyeongsang Bubbles

단체명 팀클라운

러닝타임 30분

작품 및 단체소개

경상도스러운 유쾌한 비눗방울의 서울 나들이
경상도 스타일의 비눗방울에 희망을 담아 이야기한다. 비눗방울에 담긴 꿈같은 이야기. 그러나 작품이 너무 어렵고 집중할 수 없어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즐겁고 재미난다. 그렇다. 그냥 앉아서 행복을 느끼면 된다.

‘팀클라운’은 즐거운 공연을 배달하는 광대이다. 새롭고 즐거운 거리쇼 창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객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또한 감동받을 수 있는 쇼를 선보여 모두가 유쾌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거리공연을 하고 있다.

연출 및 출연 안동윤



나홀로 서커스

Circus Alone

단체명 마린보이

러닝타임 30분

작품 및 단체소개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뻘하지 않아서 뻘(Fun) 한 광대극

〈나홀로 서커스〉는 ‘마린보이’의 가장 대표적인 공연이며 초미니 자동차의 등장을 시작으로 코미디, 마임, 저글링, 서커스 스킬 등을 결합한 코믹 서커스 공연이다. 광대의 다양한 묘기 퍼레이드와 유쾌한 재담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1인 광대극이다.

남도의 작은 섬에서 자란 바다 소년 ‘마린보이’는 2003년 저글링을 기반으로 한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17년간 수많은 국내외 축제에 초청되어 공연하였다. 최근에는 서커스뿐만 아니라 메이커로서 직접 제작한 장치들을 공연에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는 광대이다. 대표작으로는 〈나홀로 서커스〉, 〈고물 수레〉, 〈숨;Breath〉 등이 있다.

연출 및 출연 이성형 음향오퍼 조혜진



재주 많은 아저씨의 50가지 서커스 쇼

A Talented Man with 50 Circus Show

단체명 예술인

러닝타임 30분

작품 및 단체소개

경험하라! 짜릿함을 즐겨라! 이것이 서커스다

욕심 많고 재주 많은 아저씨의 놀라운 서커스 쇼가 펼쳐진다. 날마다 찾아와도 늘 새로운 서커스 쇼를 만날 수 있다. 관객의 함성과 참여에 따라 스케일이 달라지는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커스 쇼이기 때문이다. 아크로바틱, 홀라후프, 차이니스 폴, 파이어, 상모돌리기, 저글링, 점핑부츠, 밸런스 등 수많은 서커스 쇼가 사진첩을 넘기듯 잃어버린 추억과 감동 그리고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단체이다. 다양함이 하나로 되어 더욱 견고해진 우리만의 서커스를 선보이고자 한다.

연출 및 출연 차정호 스태프 안성우



광대의 꿈

A Clown's Dream

단체명 스토리 서커스

러닝타임 40분

작품 및 단체소개

광대의 꿈, 파랑새는 있다

서커스는 다양한 장르가 있으며 그 옛날 어렵던 시절 시골 장터와 전국을 돌며 국민의 애환을 함께 하며 울고 웃었던 대중문화 예술이다. 그 시절의 전통 근대 서커스를 현대에 맞춰 재현한 〈광대의 꿈〉은 추억의 시간과 공간의 향수를 자극하며 관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한다.

서커스 가족의 장남으로 천막 극장에서 태어난 ‘스토리 서커스’ 대표 안재근은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50여 년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눈팔지 않고 평생을 곡예사로 살아온 근대 서커스의 마지막 남은 곡예사이자 광대이다.

연출 및 출연 안재근



날갯짓

The Flutter of Wings

단체명 서커스 디 랩

러닝타임 20분

작품 및 단체소개

나비를 닮은 디아볼로의 날갯짓이 그대의 마음을 훔친다

소년에게 날아든 나비는 이별을 경험한 누군가에게 불현듯 찾아온 새로운 인연일까? 나비인 듯 인연인 듯 디아볼로를 바라보는 소년의 눈빛에서 누군가의 사랑이 떠오른다.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 스킨십에 집착했으며 목 조름 같은 답답함을 상대에게 강요하였는가. 잃어버린 후에도 왜 똑같은 집착을 반복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떠나보내는 이의 마음을 디아볼로를 통해 그려본다.

‘서커스 디 랩(Circus D.Lab)’은 서커스 드라마 연구소의 약자로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연구하는 단체이다. 다양한 오브제에 대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현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 보여주하고자 한다.

연출 및 출연 이준상



가라앉거나 헤엄치거나

Sink or Swim

단체명 공연창작집단 사람

러닝타임 30분

※ 2018-2019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선정작

작품 및 단체소개

그렇게 살아간다

공중 밧줄을 메인 오브제로 한 현대 서커스 작품으로 생명의 땃줄, '자신의 내면과의 연결 줄'로써 밧줄을 해석하였다. 한 개인이 출생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희망 없는 괴로운 시간 속에 빠진 뒤 일어나는 내적 갈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삶의 의지를 담고 있다.

'공연창작집단 사람(A PERSON:S)'은 '예술은 개인의 것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관객을 단순 집단이 아닌 불특정 개인의 집합체로 바라보고 각 개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작을 목표로 한다. 신체 행위예술을 중심으로 목표 의식과 맞닿은 직접적인 실험을 추구하며 현재는 서커스와 신체 연극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창작 서상현 **출연** 서상현, 이수민

무대팀 손진영, 이상순 **의상** Vanessa So WingNi



서커스는 클래식을 타고

Circus Meets Classic

단체명 피오네로 서커스

러닝타임 45분

작품 및 단체소개

보고, 듣고, 깊이 빠지다

몸에 맞는 옷이 있다.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며 입은 사람도 보는 사람도 뿌듯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옷. 서커스에 클래식과 힙합을 입혀 멋을 뽐내고자 한다. 서커스와 음악의 파동이 중첩하여 강렬하고 아름다운 감동이 펼쳐진다. 파이어, 아크로바틱, 에어리얼 퍼포먼스 등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공연이다.

'피오네로 서커스'는 서커스와 아크로바틱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융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 작품을 통해 관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넘어 가슴 한편에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고민하고 도전한다.

연출 차정호 **출연** 전아람, 차용현, 손성국, 허유나, 차정호 **스태프** 안성우



우체부

Postman

단체명 왈츠매직

러닝타임 30분

작품 및 단체소개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는 우체부 아저씨의 에피소드

이제는 느리고 불편한 편지지만 그 속엔 보내는 이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다. <우체부>는 서커스와 마술, 마임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는 우체부의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결핍 또한 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왈츠매직' 대표 김영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재능을 부족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 세상을 좀 더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추구한다.

연출 및 출연 김영주



수직

Suzik

단체명 포스

러닝타임 25분

작품 및 단체소개

수직 구조 속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세 남자의 이야기

수직 사회 속에서의 경쟁이 아닌 상생, 수직이 아닌 수평,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협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 수직이라는 위태로운 직선 위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상생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 뒤처지면 손도 내밀고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공연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하는 상생의 가치이자, 새로운 '수직'의 의미이다.

'포스(FORCE)'는 창조적 예술을 위한 집단 (FOR Creative Entertainment)의 약어로 융합과 연결을 모태로 예술 고유의 가치와 현대의 무한한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조화된 공연 형태를 선보여 예술에 대한 시선과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융합 뉴 폼 아트 창작 그룹이다.

기획 및 연출 이영호 **공동창작 및 출연** 김재섭, 김선혁, 이영호
음향오퍼 및 스태프 조민상



조타;Steer

JO-TA;Steer

단체명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

러닝타임 40분

※ 2019-202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선정작

작품 및 단체소개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긴 항해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부여잡고 있던 방향키를 놓아 버릴 때가 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조타를 부여잡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 버린 우리는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도 진정 가고자 했던 그곳을 향해 설렘과 기쁨으로 항해하는 아름다운 조타수가 되어야 한다.

‘화이트 큐브 프로젝트’는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부정적인 것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와 원동력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도전하는 단체이다. 춤, 연기, 사운드, 빛, 구조물, 서커스, 아크로바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흡수, 변형, 재구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극장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이동형 공연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러 장르적 특성을 흡수하여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안무연출 정성태 **퍼포머** 정성택, 김선혁, 정성태 **음악감독** 장일호

무대감독 박성을 **코디네이터** 신현아 **기획매니저** 심주영

Pulse;맥

Pulse

단체명 프로젝트 루미너리

러닝타임 20분

작품 및 단체소개

두 인물의 두 가지 선택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인물의 인생이 바뀐다. 고조되는 탱고의 선율과 선택의 기로에 놓인 두 사람. 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이 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선택을 하고 때로는 해야만 한다. 탱고의 선율과 비올라 연주,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에어리얼 아트와 삼중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다.

‘프로젝트 루미너리’는 에어리얼 아트와 무용을 바탕으로 배우의 새로운 신체 움직임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의 관객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공연예술 단체이다. 나아가 배우의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신체극, 공연의 사회적 참여에 기반을 둔 거리극, 극장을 벗어난 장소 특정형 공연 등 기존의 공연 질서를 뒤따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연 형식을 발견하고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차별성 있는 공연을 추구한다.

연출 엄만기 **출연** 이슬빛나, 우소현

비율리스트 정민경 **기술** 최재형, 차희수



체어, 테이블, 체어.

Chair, Table, Chair.

단체명 팀 퍼니스트

러닝타임 35분

※ 2017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창작지원 사업 선정작

작품 및 단체소개

의자가 들려주는 다양한 감정의 음악 이야기

4인조 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퍼포먼스가 마임, 서커스, 비눗방울 등 장르를 넘나들며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의자와 테이블 등 일상적인 소품으로 다양한 공간 및 상황을 연출하며 이를 통해 삶의 기다림과 회상을 이야기한다.

‘가장 즐거운’, ‘가장 재미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팀 퍼니스트’는 2003년 창단하여 현재까지 서커스 코미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년별 퍼포먼스 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저글링, 마술, 마임, 아크로바틱, 악기 연주, 서커스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혼합하여 기획 및 연출하고 있다.

출연 김희명, 최대성, 심재성, 김한상



블랙클라운

Black Clown

단체명 김찬수마임컴퍼니

러닝타임 30분

작품 및 단체소개

까칠한 광대의 년별벌 서커스

항상 툭툭거리는 광대는 관객에게 친절하지 않은 광대이다. 몸짓과 표정만으로 관객을 압도할 것이다. 관객을 괴롭히고 장난치며 놀리는 게 그의 장기이다. 마임과 다양한 저글링, 코미디, 관객과의 놀이, 요술 풍선, 외발자전거 등 서커스 광대가 보여주는 화려한 볼거리와 관객과 함께 하는 놀이 등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2008년 창단한 ‘김찬수마임컴퍼니’는 년별벌 공연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마임을 베이스로 클라운마임을 대표 캐릭터로 활동해 오고 있다. 국내 광대 극단의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서커스와 마임, 거리극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 중이다. 국내외 공연예술 축제 및 무대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관객과 좀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단체이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커스와 마임 교육을 통해 년별벌 공연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연출 및 출연 김찬수



슈뢰딩, 거의 고양이

Schrödinger's Cat

단체명 64J(줄)

러닝타임 25분

작품 및 단체소개

줄에 얹혀있는 선택지에 대한 불안정한 양자 역할 실험

세상에 던져진 두 개의 양자. 두 양자는 줄을 타며 선택을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줄은 옳은 줄일까?

'64J(줄)'은 64kg의 물체를 1m/s로 1m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대표 박상현의 변하지 않는 몸무게이기도 하다. 신체를 중심으로 공연을 만들 때 64J의 일 = 움직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 또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 그리고 기예를 위한 설치 등에서 오는 제약을 즐거운 상상을 통해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어 간다.

연출 및 출연 박상현, 박동조 음악감독 및 연주 신세빈 사진기록 정희철

외봉인생

The Road to Heaven

단체명 봉앤줄

러닝타임 35분

작품 및 단체소개

끊임없이 걷고, 오르고, 떨어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 - 하늘로 가는 길

남자는 긴 봉을 이용하여 수레를 끌고 노래를 부르며 어딘가에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긴 봉을 하늘로 높게 세우고는 그 위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등장할 때 남자가 불렀던 그 노래가 소리꾼의 입을 통해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관객은 외봉에 끊임없이 오르고 떨어지는 한 남자의 모습에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된다. '전통연희'와 협업으로 창작한 '컨템포러리 서커스' 작품으로 관객은 전통 서커스와는 다른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봉앤줄'은 서커스 기예인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익힌 안재현에 의해 창단했다. 화려해 보이는 서커스 기예 이면의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서커스 기예와 다른 장르의 결합을 통한 동시대 서커스 창작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현실이지만 상징적 존재들이 혼재한 시공간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를 무대 위에 구현하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나아가고자 한다.

연출 및 기예 안재현 소리 및 대금 조원석 대북 안재민

무대감독 신장환 무대 스태프 이유근



CIRCUS CABARET

2020. 10. 9.(금) ~ 10. 11.(일)

문화비축기지

주최 · 주관 I·SEOUL·U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협력 문화비축기지

서커스 카라반을 만든 사람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휘
문화시민본부	백승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동희, 류한영, 장옥영, 최호범, 김상근, 정단비, 문수빈, 우민혁, 이호연
홍보	이현정
공연	홍성혜
기술	유성희, 김지연
운영	김희진

더 웰컴

총괄	유리해
운영	임자인, 김승한, 이진영, 이도현
시스템	거장에스알, 쇼라이트, 화이트비전, 로템영상, 웨미리무대
홍보	김예림

문화비축기지

소장	서정화
	이승환, 이보현, 신현우, 김동진, 황유성

함께 하신 분들

일러스트	김유
디자인	더블유프로젝트
영상	공감, 아이엘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 KENN
SKY 텐트	프로젝트 날다

문의 02)6203-2537, 02)3437-0099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